

“아는만큼 보인다 보인만큼 사랑한다”

- 북한산 국립공원 환경해설 참관기 -



박계수

- 본회원
-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산서회 부회장

1 수목 탐방로 (청릉코스)

「나무가지를 불에 태워보면 그 재가 노랑다고 해서 노린재나무」

「나무껍질을 벗겨 물에 담그면 물 빛깔이 푸르게 변한다고해서 물푸레나무」

「속살을 쏘옥 밀어 올리면 국수같은 가닥이 기어나와 국수나무」

한참을 재미있게 설명하다말고 도토리 나무는 왜 사람 키높이 정도에 흉칙스런 흠집이 나 있는지 아느냐고 묻는다. 산꾼입네 하던 내 입이 딱 다물여진다. 금강경서초를 짊어지고 다니며 팔만대장경에 능통했던 회양선사가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는 육조스님 한마디에 말문이 꼭 막혔다던가?

사람들이 도토리 채취하느라고 망치로 두들겨 패서 그렇다는 박봉우 교수 얘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비가 적게 오니 흉년이 들고 그런해엔 도토리가

풍년이 되어 구황식품이 되고 -」
 임업연구원 최명섭 선생의 얘기를
 들으며 난 그리 멀지 않은 보릿고
 개 시절로 줄달음 친다.

세끼 끼니가 문제였다. 그 시절,
 - 그 아픈 기억속에 내 유년은 자
 리하고 있다.

상수리 굴참, 졸참, 갈참, 떡갈,
 신갈 -

내 평생 이 나무들을 구분지울
 수는 없을줄 알았는데 오늘 설명
 을 들으니 알아볼것 같다.

「도토리묵이 증금속 해독 운운
 하나 그 효력은 아주 미미할뿐, 기
 실 묵은 메밀묵이 천하일미이니
 도토리는 다람쥐에게로 넘겨 주어
 야한다.」는 박교수의 얘기를 끝으
 로 이날 행사는 막을 내렸다.

2 야생화 탐방로 (구기동 코스)

양지쪽에 피는 꽃은 양지꽃, 병
 처럼 생긴 꽃은 병꽃, 별처럼 예쁜
 꽃은 별꽃, 소의 뿔처럼 생긴꽃은
 쇠별꽃. 해설하는 안동식 선생은

현직 고교교사이다.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열
 심히 꽃과 인사를 한다.

단 한번도 눈길을 주지않고 지
 나쳤던 그 작디작은 풀꽃마다 예
 뿐 이름이 붙어있다.

오늘 하루 야생화 탐방팀은 출



입금지 구역이 없다. 공원협회 직
 원들이 안내해준다.

마고(여신)는 달밤이면 반야(남
 신)를 기다렸다. 달려오는 반야를
 향해 마고는 풀밭을 뛰었다. 그러
 나 그것은 바람에 일렁이는 쇠별
 꽃무리였다. 심통이 난 마고는 반
 야에게 즐려고 기워놓은 옷을 발
 기발기 찢어 하늘에 날린다. 나뭇
 가지에 걸린 옷자락이 환란이 된
 다. 그리고 쇠별꽃을 지리능선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후세사람이 노고단에 마고의 탑을 쌓고 위로하자 다시 쇠별꽃이 피었다. 그러나 지리산 산나물을 먹으면 산모의 젖이 나오지 않는 것은 여태 마고의 심통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토끼봉에서 바라본 반야봉은 노고단을 등지고 있다.

마고의 짝사랑은 끝날날이 없노라고, 휴식시간을 이용한 필자의 얘기가 쇠별꽃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을 얼마간 고조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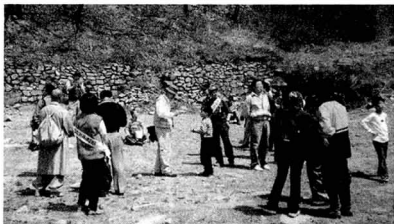
오늘 하루 이 쇠별꽃 하나만 제대로 익히자며 모두 박수를 친다.

어느덧 보국문에 이르러 행사가 끝났지만 일행은 하산을 같이한다.

3 역사 문화탐방로 (북한산성코스)

「북한산성을 장악하는 세력이 한반도의 주인이 되었다」로 시작되는 문화재 발굴 조사단장 정재훈씨의 해설은 사뭇 진지하다.

제한된 시간에 너무 많은것을 알려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



다 모두들 서둘러 메모를 한다.

북한산성은 1711년 숙종37년에 전국의 승군을 동원하여 축성하였다.

유사시 왕과 군사가 1년을 버틴 군량미 70만석을 상·중·하창에 보관했다.

해마다 새곡식으로 교체하기 위해 평창동에도 쌀창고가 있었다.

참가자들이 평창동의 어원을 절로 이해하고 빙긋 웃자 정선생도 따라 웃는다. 선정비군에 있는 승도절목을 설명해 준다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여 승군대장을 직접투표로 뽑는다는 내용이다. 300여년 전 23개의 선정비가 암반위에 버섯처럼 돋아나 있다.

그 중 하나를 지켜본다.

「민영준」 - 후에 민영휘로 개명

한 자다. 휘문고교와 상업은행을 창시한 사람이다. 휘문고교의 휘자는 자기이름에서 따왔다. 원세개에게 청군을 지원받아 동학군을 토벌했다. 청일전쟁의 도화선이다. 민비시해도 역시 - 머릿속으로 역사를 가설해 본다.

10여분 거리에 중흥사가 자리하고 있다. 사진엔 대웅전 극락보전 만세루등 제법 사찰규모가 웅장하지만 지금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1905년 동경대 조사단이 찍은 사진을 복사하여 비치해 놓았다.

중흥사엔 매월당 김시습이 공부하고 있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책을 불사르고 방랑의 길에 오른다.

1455년의 얘기이다. 승군을 지휘했던 사명당·서산대사·술한 승군·벼슬아치들 - 그들의 무수한 발자욱위에 시공을 넘어 오늘 내 작은 발자욱을 더하면서 무작정 내닫기만 하던 나의 지난 산행이 얼마나 단조로운 행위였던가 되돌

아 본다.

나무를 알고 야생화를 알고, 그리고 술한 조상들의 애환이 서린 얘기들을 들으며 북한산 환경해설 3개코스의 참관을 끝낸다.

이 행사는 10월 21일까지 매월 1, 3주 일요일 09:30 각각의 장소에서 어김없이 치루어진다.

봄이면 봄꽃, 여름이면 여름꽃, 계절따라 코스따라 내용이 바뀌니



계속 참가해도 좋다. 회비가 없다고 비지떡인줄 알면 안된다. 술한 내 산친구들에게, 그들의 가족에게 의미있는 산행의 참모습을 배우기 바란다. 『아는만큼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보인만큼 사랑한다』고 누가 말했다.

참으로 뜻깊은 행사를 주관해준 국립공원협회에 감사한다. ♪